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Newsletter

단아인

2020. 11
vol.10



〈표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이해형 학장〉

CONTENTS

- 03 학교 소식
- 05 교수 소식
- 08 DKU 인터뷰
- 12 동아리 소식
- 16 장학금
- 17 교수진



News



치과대학 치의예과 해부학교실 박종태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19.10.31)



▲ 박종태 교수가 과학치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왼쪽 두 번째 박종태 교수)

박종태 교수(치의예과) 팀이 '제5회 과학치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치안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 총 16개 수상팀을 선발했다. 박 교수팀은 '스마트 치안을 위한 첨단과학 수사기법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국내 변사 사건 대비 부족한 검시관 인력문제를 분석하고 과학수사요원의 효율적 업무를 위한 음성인식 어플리케이션 개발, 국내현황에 맞는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개발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교수는 "의과학 기술과 인문, 사회 등 다양한 분야 융합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대학 치의예과 치과생체재료학 교실 이해형 교수, 범은학술상 수상

(2019.11.06)



지난 11월 1일 죽전 난파음악관에서 진행된 개교 72주년 기념식에서 치의예과 이해형교수가 범은학술상(연구업적부문)을 수상했다.

본 상은 최근 1년간 국내·외 저명학술상을 수상한 교원 또는 해당 전공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배출한 교원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News



치대 4기 동문 발전기금 7천만원 기부

(2019.12.13)



▲ 임헌송 동문(왼쪽)이 김수복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 발전기금 전달식 기념촬영. (왼쪽부터) 한세진 교수, 조자원 교수, 고선일 교수(이상 치과대), 남보우 천안부총장, 이유영 동문, 임헌송 동문, 김수복 총장, 김종수 치과병원장, 강상대 비서실장, 김재필 치과병원 행정부장, 양종근 대외협력처장



▲ 이유영 동문(왼쪽)이 김수복 총장에게 치과병원 발전기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1989년에 졸업한 치과대학 동문(4기)들이 졸업 30년을 맞아 정든 모교의 교정을 둘러보고 대학과 치과병원 발전에 써달라며 발전기금 7천만원을 기탁했다.

5일 천안 총장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김수복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및 치과병원 관계자와 졸업생을 대표한 임헌송 동문(가온치과병원장)과 이유영 동문(스마일치과 원장), 동문이자 우리 대학 치과병원장인 김종수 동문이 참석했다.

임 동문은 “치과대학 4기의 졸업 30주년을 기념하고 동기생 김종수 동문의 병원장 취임을 축하하고자 졸업 동문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수복 총장은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우수하고 성숙한 인재를 키우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각급 병원을 운영하는 동문들에게 “병원이 의료기관이라는 사고에만 안주하지 말고 치료와 더불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복지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동문 의료인들도 시대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길 당부했다.

이날 이유영 동문의 치과병원 발전기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유영 동문이 쾌척한 2천만원은 치과병원 BLS 트레이닝센터 개소에 쓰일 예정이다. BLS 트레이닝센터는 병원 임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며 전국 치과병원 중 우리 치과병원이 처음으로 개설한다.

News



▲ 이해형 교수

이해형 교수 대한치의학회 학술상 연승상수상(금상)

(2020.07.09)



대한치의학회와 (재)신흥연승학술재단이 주최한 이번 연승 치의학상 시상식은 지난달 6월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자는 현재 우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장으로 재직중인 이해형 교수(치과대학 치의예과)가 제16회 대한치의학회 연승치의학상 시상식에서 연승상(기초치의학)을 수상했다.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2004년 제정한 연승치의학상은 전국 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치의학계 대표 학술상이다.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이 탁월한 임상 및 기초치의학 교수를 심사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 교수는 “훌륭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치의학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02년 우리 치과대학에 부임한 이해형 교수는 치과용 생체재료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2013년, 2019년 범은학술상(연구업적부분)을 수상하였고, 현재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2019~2025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2020~2025년)의 책임자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치과재료학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치과재료학 교수협의회장을 맡고 있음과 동시에 치과대학 제 16대 치과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차경석 교수 정년 기념 강연

(2020.08.04)



2020년 6월 17일 연송홀에서 차경석 교수님의 정년기념 마지막 강연이 치과대학 본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차경석 교수님은 1982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전공의를 수료한 뒤 1993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육 연구부장을 시작으로 단국대학교와 인연을 맺어 2020년을 끝으로 약 35년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온도체크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많은 제자들과 동문, 현직 교수들이 함께하여 차경석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 후 지도학생의 편지낭독 및 감사장과 화환을 증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News



▲ 박종태 교수

「치과대학 박종태교수, “교육부장관상 수상”- 2020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정」



▲ VR 시제품 시연



▲ L/R 영어발음 연습 화면

박종태 교수(치과대학 치의예과)가 2020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어, 지난 12월 17일(목)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교육부장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시상)을 수상했다.

위 상은 지난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21,505건 중 공모와 추천으로 접수된 156개 후보 중 인문사회 분야 30건, 한국학분야 5건, 이공 분야 15건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박종태 교수의 “VR기반 영어발음 및 의사소통 함량을 위한 시제품 제작”이 우수성과 중 융합연구분야부문에 선정되었다.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교육부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날 박 교수는 “교육부 장관상은 교수인 저에게 그 어떤 상보다 큰 의미가 있다. 이 상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환경 발전을 위해 이공계 및 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연구를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단국대 치과대학 김은경 교수 복지부 장관상 수상」



▲ 김은경 교수

우리 치과대학에 재직중인 김은경 교수(단국치대 영상치의학교실)가 ‘2020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유공자포상’에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김은경 교수는 △치과방사선 촬영종류별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유럽연합의 방사선 방어 시리즈 No.172 ‘치과용 콘빔CT 근거기반 가이드라인’ 번역 등 진단용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Gallery

치의학연구소 교내 학술대회

(2018.11.09.)



김시석, 홍찬의 교수 정년 퇴임식

(2018.12.17.)



치과대학 동계 워크숍

(2019.01.18.)



Gallery



치과대학 입학식

(2019.02.20.)



봄 학위수여식

(2019.02.21.)



Gallery



임상외래교원 간담회

(2019.02.13.)



치과대학 하계워크숍

(2019.07.18.)



Gallery



2학기 전체교수회의

(2019.09.23.)



치과대학 하계워크숍

(2020.08.20.)



치과대학 연구 동향

이수민/김수연 양, 치의학 분야 SCI급 논문 게재

현재 치과대학 치의학과에 재학중인 이수민·김수연 양(치 의학과 3년)이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주목 받았다. 두 학생은 우리 대학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의 「학부생 인턴십」을 통해 2017년부터 치과 재료가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 이수민 양, 치과수복 재료인 벌크필 레진의 세포독성 실험

이 양의 논문은 「벌크필 레진의 중합 깊이에 따른 세포 반응(Depth-Dependent Cellular Response from Dental Bulk-Fill Resins in Human Dental Pulp Stem Cells)」(Stem Cells International, IF=3.8) 치과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3가지 벌크필 레진이 세포 독성을 보이는 사례를 확인하고 세포의 분화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발표했다. 이 양은 “앞으로도 기초 치의학과 임상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지도를 맡고 있는 치과대학 학장 이해형 교수(치의예과 치과생체재료학교실)는 “학생들이 기초과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어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 왼쪽부터) 이정환 교수, 이수민 양, 김수연 양, 이해형 교수가 치과대학 연구실 앞에서 SCI 논문게재 기념사진을 찍었다.

▶ 김수연 양, MTA 용출액 농도에 따른 독성 실험

김 양의 논문은 「MTA의 세포독성 실험(Initial

Cytotoxicity of Mineral Trioxide Aggregate (MTA) during Setting on Human Mesenchymal Stem Cells)」(Advanced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IF=1.37) 치과 치료재료인 MTA 용출액의 농도에 따른 다양한 뼈 형성 효과 등을 분석했다. 김 양은 “인턴십 활동을 통해 평소 관심이 있었던 치과재료에 대해 더욱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지도를 맡은 이정환 교수(치의예과 치과생체재료학교실)는 “학부생의 신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SCI급 논문을 쓴 제자들이 대견하고 더욱 노력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세리아 나노입자의 효능 및 기전을 입증하여 구강악안면 재생 생체재료로서의 가능성 밝혀 (김해원 교수/이정환 교수 연구팀)

우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해형) 치과생체재료학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입자의 효능을 입증하고 기전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생체재료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Revascularization and limb salvage following critical limb ischemia by nanoceria-induced Ref-1/APE1-dependent angiogenesis”란 제목으로 ‘Biomaterials’ (IF=10.2)에 6월에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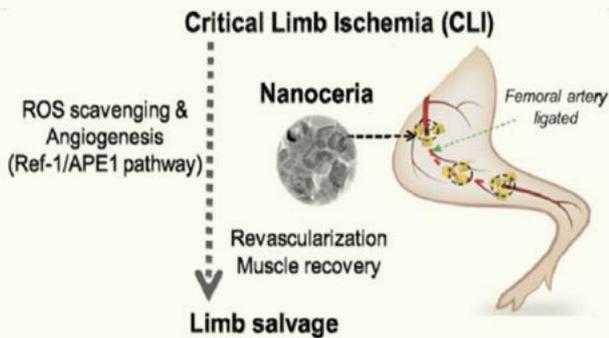
김해원 교수와 이정환 교수(치의예과 치과 생체재료학 교실) 연구팀은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나노세리아’가 조직재생에 도움이되는 신생혈관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허혈성 하지 질환(하지 대퇴동맥 절단 모델)을 가진 동물실험을 통해 기전을 밝혀냈다. 연구 논문은 최근 ‘바이오머티리얼즈(Biomaterials, IF=10.2)’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김해원 교수와 주저인 이정환 교수(치의예과 치과 생체재료학 교실)가 참여하였다.

연구 책임을 맡은 김해원 교수는 “그동안 구강악안면 근육, 신경, 뼈의 재생에 기여하는 다양한 나노·마이크로 소

치과대학 연구 동향



재들을 개발해왔는데, 추후 임상적용을 위해서는 개발된 재료의 생물학적 기전을 자세하게 밝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체 내에서 나노소재와 세포가 상호작용을 통해 면역·염증반응, 혈관 형성, 줄기세포 분화유도과정 등 복합적인 생명현상이 조절 가능함을 증명하였고, 이러한 발견이 추후 조직 재생 임상 적용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번 연구에 활용한 ‘나노세리아’는 2017년에 개발한 나노(1um 이하의 크기)입자로, 이미 우수한 항염증 기능을 통해 척수손상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혀 어드밴스드사이언스(Advanced Science, IF=15.8) 저널에 발표되기도 했다.



”구강악안면외과 교실“ 환자맞춤형 3D 프린팅 치과임플란트 개발에 박차
(구강악안면 외과학교실 김문영)

▷ ‘Dental Materials’, 전세계 치과분야 91개 SCI급 저널 중 3위 랭크(IF=4.4)

▷ 치과재료학 분야 주요 연구를 제공하는 상위 3% 국제적 연구저널

▷ 단국대학교 생체재료학교실, 해부학교실, 조직재생공학연구원(ITREN)과의 높은 수준의 연구 협업 통해 3D 프린팅 치과임플란트 재료 개발의 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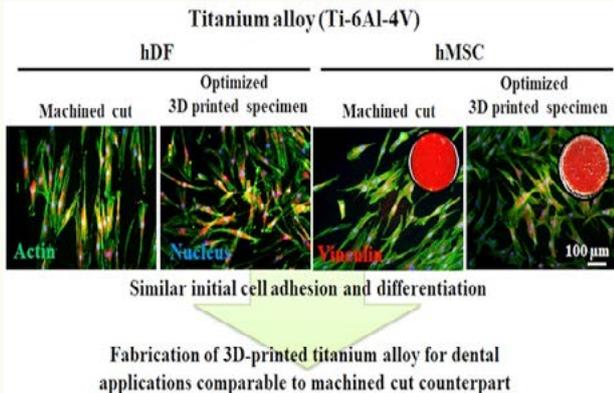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이해형)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김문영 교수가 치과생체재료학교실 및 조직재생공학연구원팀의 이해형, 이정환교수 해부학교실의 박종태 교수 등과 함께, 티타늄 합금(Ti-6Al-4V)을 이용하여 치과임플란트로 사용하기 위한 생물학적, 기계물리학적 성질을 심도있게 밝혀냈다.

본 연구 결과는 단국대학교 조직재생공학연구원, BK21 글로벌 연구센터, UCL 이스트만-코리아 덴탈메디슨 센터 등 많은 연구진의 노력의 결실 끝에 얻게된 연구 성과로, 엘스비어 퍼블리싱 그룹(Elsevier)에서 발행하는 치과계 최상위 3%급 SCI 학술지, 덴탈 머티어리얼즈(Dental Materials)에 “Mechano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3D printed titanium alloy for dental application” 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7월 게재되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Ti-6Al-4V 분말을 이용한 DLMS 3D-printing 및 표면 후처리의 최적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레이저 신터링시 발생하는 기공, 기계적 성질, 표면의 거칠기, 친수성을 각각 비교하였다. 또한 인간 피부섬유아 세포 및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한 시편의 초기 세포 접착력을 비교하고, 골형성 유전자 발현 및 바이오미네랄화를 측정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추후 3D 프린팅 치과 임플란트의 활발한 연구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대학 연구 동향



▲ 연구논문 요약



▲ 김문영 교수

Tricalcium Silicate Nanoparticle-Containing Cement에 대한 유치 치수유래 줄기세포의 생물학적 반응

정윤선 전공의, 김종빈, 신지선 교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가 이정환 교수 (치과생체재료학교실 및 조직재생공학연구원), 윤지영 (대학원 나노바이오의학과 및 조직재생공학연구원)와 공동연구하여 'Biological Effects of Tricalcium Silicate Nanoparticle-Containing Cement on Stem Cells from Human Exfoliated Deciduous Teeth' 제목의 논문을 "Nanomaterials" 10 권 7호에 게재하였다. "Nanomaterials (impact factor : 4.324) 은 Materials science (Multidisciplinary) 분야의 314개 저널 중 89위에 해당되어 상위 30% 저널에 속한다.

이 논문에서는 실제 소아치과 임상에서 생활치수 치료에 사용되는 생체활성 나노입자가 포함된 시멘트 재료

인 Biodentine™ (Tricalcium Silicate Nanoparticle-Containing Cement)의 경화 후 용출물과 임상 상황과 유사한 경화 중 용출물을 비교하며 유치치수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 및 재료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Biodentine™이 완전히 경화(24시간)한 용출물에서는 유치줄기세포의 생활력이 높게 나타났지만, 임상 상황과 유사한 경화 중(3-12분) 용출물에서는 세포 생활력이 낮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경화 중 용출물을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농도까지 희석하면 유치치수줄기세포의 상아질모세포로 (odontoblast)의 분화가 높아짐을 확인하여, Biodentine™이 유치치수조직재생을 돕는 생체활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소아치과에서 쓰는 Biodentine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신치과재료 연구와 임상학적 연구를 추후 진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환 교수, 신지선 교수, 방세정 전공의, 김종빈 교수, 정윤선 전공의, 윤지영 박사과정생)

구강안면영역의 신경병성 통증 모델링 확립 (구강내과 김혜경 교수)



치과대학 연구 동향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이해형) 김혜경, 김미은 교수팀이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Profiling thermal pain using quantitative sensory testing in patients with trigeminal nerve injury'의 연구성과를 치의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SCI 저널 중 하나인 Oral Diseases지에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Thermal perception as a key factor for assessing effects of trigeminal nerve injur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ensory testing results are associated with numbness rather than neuropathic pain in patients with postimplant trigeminal neuropathy: a cross-sectional pilot study", "Comparison of unpleasant and pain thresholds of thermal stimuli in the orofacial regions: a psychophysical study using quantitative sensory testing in healthy young men" 의 기존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삼차신경손상환자의 주관적 감각의 특성을 정량적 감각검사를 통해 환자의 주관적 통증 양상과 매칭되는 객관적 표현형을 찾고자 하였다. 검사 결과 환자의 표현형은 3*3 matrix로 총 9가지 표현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중 열통증역치에 따른 표현형이 환자의 주관적 증상과 가장 잘 매칭되었다. 또한 하치조신경손상과 설신경손상간 냉통증역치에 대한 표현형의 발현이 다르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였다.



▲ 김문영 교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냉온자극에 대한 신경병성 통증의 표현형이 환자의 주관적 증상 및 객관적 정신생리학적 검사 결과들과 서로 다르게 연관이 되어 있고, 손상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학문적 가치를 평가받았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구강안면영역에서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 모델의 인간대상 연구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냉온자극에 대한 신경병성 통증의 표현형이 환자의 주관적 증상 및 객관적 정신생리학적 검사 결과들과 서로 다르게 연관이 되어 있고, 손상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

생활성 근관 실러의 물리적 특성과 생체 기능성 규명 (치과보존과 송민주 교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이해형) 송민주 교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 연구팀과 이정환 교수(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조직재생공학연구원), 조승빈 연구원 (단국대학교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 'Physical properties and biofunctionalities of bioactive root canal sealers in vitro' 제목의 논문을 'Nanomaterials'지 (IF = 4.3) 9월호에 게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칼슘 실리카 나노입자를 함유한 실러들이 임상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인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또한 이러한 실러들이 체액 환경에서 칼슘 이온과 인산 이온, 실리카 이온을 방출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실리카 이온을 다량 방출하는 나노입자 실러는 레진 기반 실러에 비하여 매우 낮은 세포독성과 염증을 유발하였는데, 나노입자를 활용한 실리카 이온의 방출이 매우 우수한 생체 친화성을 부여한 것으로 예측된다.

최종적으로 실리카 이온을 다량 방출하는 나노입자 실러가 매우 우수한 골형성능과 혈관형성능을 가짐을 증명하여, 임상에서 적용되었을 시에 근단 병소 회복을 촉진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실리카 및 나노입자 함유 치과재료의 임상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왼쪽부터 조승빈 박사, 송민주 교수, 이정환 교수

치과대학 연구 동향



치주인대조직유래 성체줄기세포로부터 인대와 백악질 분화의 조절 분기점 연구 (구강생화학교실 장영주 교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이해형) 장영주 교수 연구팀은 세종대학교 류춘제 교수와 천안 연세우일치과 (원장 이규태) 이규태 박사와의 협업을 통해 'Activation of β -catenin by TGF- β 1 promotes ligament-fibroblastic differentiation and inhibits cementoblastic differentiation of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제목의 연구 논문을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Stem Cells'지 인쇄 전 온라인판 (9월 15일자)에 게재하였다.

'Stem Cells'지 (Impact factor 6.022)는 빠르게 확장 발전되고 있는 줄기세포 생물학 분야와 재생의학 및 관련 임상 중개연구 분야의 기초 및 임상과학자들에게는 권위있는 전문지이며, Scopus Molecular Medicine 분야 16위 (상위 9.1%) 및 H-index 5위 (상위 2.9%)에 랭크되어 있다.

치아가 치조골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치아주변의 두가지 미세조직인 치주인대와 백악질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치주인대와 백악질의 분화 기전을 제안하고 있다. 연조직인 섬유성인대와 경조직인 백악질은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지지만, 한 종류의 성체줄기세포로부터 형질변환성장인자 (TGF- β 1) 신호 자극의 유무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골형성단백질 (BMP-7)과 Wnt/ β -Catenin 신호들 간의 교차조절도 경·연조직 분화 결정에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논문을 통해 치주인대 성체줄기세포로부터 치주인대와



▲ 장영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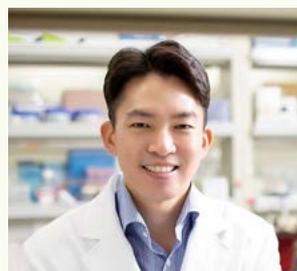
백악질 분화를 위한 전구세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술들은 향후 치아조직재생과 치아재식 및 인공치아의 치조골 안착을 위한 치료용 줄기세포의 임상응용의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대학 이정환 교수, 의생명재료 분야 최상위 논문 잇따라 출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이해형) 치의예과 김해원 및 이정환 교수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하 ITREN) 및 나노바이오 의과학과 대학원 겸무)가 최근에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위한 신생혈관형성 제어에 관한 종설 논문을 재료과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Progress in Materials Science (IF=30.5)에 발표했다.

관련링크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79642520300967>

본 논문은 손상된 신경, 근육, 뼈 등의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분과 줄기세포 등을 공급할 통로인 신생혈관형성의 필요성, 이를 위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과 기전, 그리고 최첨단 바이오소재의 개발 전략에 관해서 세포-세포기질 상호작용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책임을 맡은 김해원 교수는 "본 연구팀은 그 동안 신생혈관형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종설 논문은 이러한 결과들을 집대성한 것이며, 바이오소재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미래의 전략을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이정환 교수

본 논문의 주저자를 맡은 이정환 교수는 신생혈관형성능 뿐 아니라, 항균성, 조직재생능을 지닌 다양한 나노바이오소재를 개발하여 Biomaterials (IF=10.3), Bioactive Materials (IF=8.9), Acta Biomaterialia (IF=6.6, 이상 생체재료분야 상위5%), Dental Materials (IF= 4.6, 치의학분야 상위 5%) 등 최근 5년간 55 편 (상위10% 이내 20편)의 논문을 주저자로 출간하고 있다.

교수 소식



인사

발령

- 학 장 이해형 (2020.07.01)
- 부 학 장 고선일 (2020.07.01 연임)
- 치의학과장 신수연 (2020.03.01)
- 치의예과장 이상민 (2020.03.01)
- 치의학교육실장 최진우 (2019.01.01)
- 치의학연구실장 이정환 (2019.03.01 연임)
- 졸업준비실장 최유성 (2020.03.01)

신임교원

- 보철과 박수정 (2019.03.01)
- 보철과 하승룡 (2019.03.01)
- 통합 진료과 신수일 (2019.03.01)
- 치주과 이성조 (2020.03.01)
- 소아치과 이준행 (2020.03.01)
- 예방치과 유현준 (2020.03.01)
- 구강 미생물학 이성훈 (2020.09.01)
- 구강 악안면외과 박성민 (2020.09.01)

연구년

- 소아치과 김종빈 (20.09.01 ~ 21.08.31)
- 치주과 박종철 (20.09.01 ~ 21.08.31)
- 보철과 송영균 (20.09.01 ~ 21.08.31)

연구년 복귀

- 통합 진료과 유태민 (19.09.01 ~ 20.08.31)
- 치과 보존과 문호진 (19.09.01 ~ 20.08.31)

학교소식 / 치과대학 연구 동향이 이어집니다



▲ 재료과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Progress in Materials Science (IF=30.5)에 논문을 발표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이해형, 앞줄 오른쪽에서 첫번째) 김해원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및 이정환 교수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한편,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진을 기반으로 융복합연구를 위해 2007년에 설립한 ITREN (원장 김해원 치과대학 교수)은 2017년에 단국대학교 교직원연구원으로 승격되는 등, 지난 13년간 분야별 상위1% 20편, 상위10% 200여 편 등 다수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다양한 기초과학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BT(기초생물학)-MT(임상(치)의학)-NT(나노재료학) 융복합연구에서부터 (구강)세포-세포외기질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이르기까지 치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현재, 12개 해외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원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Interview



1. 신임 이해형 학장님
2. 교수인터뷰<신지선, 이준행, 박성민 교수>
3. 비대면 강의 및 시험 소감 (본3 이준영)
4. 인턴 허영서

1. 신임 이해형 학장님



Q2)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와중 7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을 하신 후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앞으로 학기 중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1학기 동안 학생 여러분도 교수님들도 많이 고생하여준 덕분에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실습으로 마쳤습니다. 2학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서 걱정입니다. 그동안 대학본부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여 온라인 강의 등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우리 치과대학은 임상 실습을 하는 3,4학년 학생은 전원 오프라인으로 하고 강의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전부 온라인 강의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험에 관해서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었는데 이 지침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의 지침에 따라 잘 따라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학동안 치과 의사 국가고시의 실기시험에 대한 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2학기 와 내년 1학기에 교수님들과 협의하여 임상실기시험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1)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신임 학장으로 취임 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2002년에 부임을 해서 치과생체재료학 교실의 교수와 치의학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활동을 하면서 치과생체재료학 및 임상치과재료학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졸업 후 공중보건의를 거쳐서 개원을 하다가 다른 길을 걷고 싶어서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처음 교수생활을 시작한 후 단국대에 오게 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학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지만 학생들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Q3) 신임 학장님께서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치과대학 교육이 단순히 임상 치과 의사의 양성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치의학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대학 본연의 연구에 있어서는 아직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이 되기 위하여 졸업생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임상과학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임상만이 아니라 교육자, 의사과학자, 교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Interview



1. 신입 이해형 학장님
2. 교수인터뷰<신지선, 이준행, 박성민 교수>
3. 비대면 강의 및 시험 소감 (본3 이준영)
4. 인턴 허영서

Q4)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입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여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과 현재 재학생들에게 당부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재학생도 답답하겠지만 제일 답답한 사람은 아마 신입생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기 말에 일부 학생과 온라인으로 미팅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답답함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워낙 특유의 사태이다 보니 조금 답답하더라도 각자 치의학 관련 도서도 읽고, 개학 시에는 온라인 강의로 충실히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2학기 말이나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므로 온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로 채우는 등 각자 자기주도학습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기와 실습을 생명으로 하는 치과대학 교육에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임상전단계 실습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만에 하나 단계가 높아진다면 실습도 온라인에 의존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현재에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만을 염원할 뿐인데 여러분 각자 감염에 이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교수인터뷰<신지선, 이준행, 박성민 교수>

SCI 논문 출간 인터뷰, 신지선, 소아치과



Q1) Biodentine이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Biodentine™은 임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혼합 후 6분 전후로 치수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Biodentine™의 생체 적합성(biocompatibility)이나 생체 활성(bioactivity)에 대한 연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재료를 24시간 가량 경화시킨 후 세포들에 적용하여 우수한 세포활성 결과를 내었습

니다. 이는 임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화 중 용출물(임상 상황을 반영한)과 경화 후 용출물의 유치치수 줄기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화 후 용출물(이전 연구들과 유사한 조건)에서는 훌륭한 세포 활성이 나타났지만, 경화 전 용출물(임상 상황을 반영한 조건)에서는 세포 독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고, 이를 Calcium 이온 함량, pH, 그리고 표면 화학적 결과들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포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농도에서 경화 중 용출물은 유치치수 줄기세포에 대하여 negative, positive control보다도 높은 odontogenic differentiation 정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Biodentine™은 적절히 희석된 농도에서는 치수 재생을 도울 수 있는 전도유망한 재료로 사료됩니다. 또한 치수 조직에 적용하는 재료의 생물학적 효과를 연구할 경우 임상 상황을 반영하여 재료가 경화 중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Q2) 굉장히 난해한 연구였을텐데 결과가 잘 나와서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 중에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Interview



무엇보다 이번 연구로 줄기 세포를 이용한 실험을 꽤 오랜만에 해보았는데, 간만에 줄기세포관련 실험을 하려니 꽤 생소하고 감이 안잡히더군요(웃음). 직접 소아환자의 치아에서 세포를 추출하여 계대배양하여 증식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항상 흥미로운 실험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정환

교수님과 조직재생공학연구실(ITREN) 윤지영 선생님의 도움덕에 수월하게 연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임교원 인터뷰, 이준행, 소아치과



며, 성인 환자와 사뭇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수복치료, 간단한 소수술, 일부 근관치료, 교정치료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치과영역 전범위를 포함하여 폭넓은 진료를 진행하는 과입니다.

Q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 교수인 이준행입니다. 소아치과를 전공했고, 로컬 개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며 세종병원 통합치의학과에서 잠시 진료를 보다가, 이번에 단국대 치과대학 소아치과 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Q2) 소아치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아치과는 행동조절이 어렵고 협조도가 떨어지는 소아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과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생긴 학문입니다. 아이들의 상태, 행동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진료하

Q3) 수많은 진료 중에 교수직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교수가 되고 싶은 학부생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도 학부생 시절에 교수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지금 제가 교수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학교, 즉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한다면 가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정직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로컬에서 나는 의사이면서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진료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방해받는 일이 여럿 있었습니다.

Q4) 교수로서 진료와 더불어 학부생에게 치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계신데, 학생들이 어떤 치과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신가요? 교육철학이 궁금합니다.

사회에서 치과의사들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잉진료, 속된 말로 바가지질 씌운다는 것이죠. 진료에 치과의사 각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병원마다 진단

Interview



과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견해의 차이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겠지만, 그래도 일부 표준화된 치료알고리즘을 통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자를 진료해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충분한 치의학 지식 갖고 있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겠지만요.

Q5) 교수님께서 관심 있으신 분야는 무엇인가요? 치의학적으로, 혹은 그것과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어려워하고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행동조절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진정요법에 쓰이는 안전한 약물을 찾아 소아환자에게 부작용 없이

진정요법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내실있는 이론수업과 실습이 진행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교육자로서 요구하는 공부량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학업에 집중하기 불리한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삼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예비의료인임을 인식하여 치의학적 지식을 쌓는 것에 소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치의학도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신임교원 인터뷰, 박성민 교수, 구강악안면구강외과



Q1) 이번에 새롭게 오셨고, 현재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직 교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02학번 박성민 이라고 합니다. 본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

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문영 교수님과 수련 동기입니다. 징병전담의사로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1년 동안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좋은 기회를 통해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교와 세종 분원에서 2년간의 임상 전임의로 재직하였고, 현재 단국대학교 세종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임상조교수로 재직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일자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신임교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Q2)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신임 교수님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하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제가 신임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강악안면외과라는 전공을 택한 이후에는, 큰 미래는 그려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앞만 보고 살아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가르침을 받

Interview



있던 교수님들과, 또 저의 후배인 학생 여러분과 저의 모교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진실되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 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왔던 길을 돌아켜보면 결코 저 혼자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도 해주셨던 모든 교수님들, 저의 귀감이 되어주신 선후배님들, 무엇보다 힘들 때 항상 옆에서도 도와주던 동료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은 더욱 험난하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바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Q3) 지금 교수님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계시지만, 한때는 교수님께서도 저희와 같은 학부생 이셨을 텐데, 교수님의 대학 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는 등한시 했고, 무엇보다 치과대학 생활 자체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강제적인 자율학습 세대였던 저는 대학생활의 자유로움에 도취되어 저의 본분을 잊고 나태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본과 4학년이 되어서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지금까지 남들처럼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좌절감때문에 휴학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저한테 탈출구가 되었던 것이 구강악안면외과였습니다. 원내생 시절에 수술방 견학을 갔는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많은 수술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저녁 9시경 쯤 수술이 끝이 났는데,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수술하시는 교수님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고, 저도 그 안에 있는 동안 현실적인 고민들과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 외부에서 인턴생활을 했지만, 본교로 돌아와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다행히 외과지원자가 많지 않아 본교에서 김문영 교수님과 같이 수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인턴생활을 했을 때는 일년이 십년같이 느

껴졌고 굉장히 외로웠지만, 본교에서 수련을 받는 동안은 힘들지만 너무나 즐거웠고,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연구와 공부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켜보면 학부생 내내 훌륭한 교수님들과 학생들 속에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절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본인이 생각하는 학부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분들에게 귀감이 될 만큼 제가 훌륭한 사람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4)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뵈며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께서는 학부생 시절부터 교수직에 대한 뜻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따로 계기가 있었는지’ 인데 이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학부생 시절에는 제가 감히 교수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각자 분야에 능통하신 교수님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부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교에서 수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의 이름을 걸고 진료를 하고,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임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학교에 계속 남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문의를 따고 군복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모교로 돌아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고, 단국대학교 세종 치과병원이 신설되면서 모교로 돌아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5)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교 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생활을 돌아켜 보면 6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교 생활이 힘들었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졸업한 이후의 삶도 제가 생각한 만큼 쉽지

Interview



1. 신임 이해형 학장님
2. 교수인터뷰<신지선, 이준행, 박성민 교수>
3. 비대면 강의 및 시험 소감 (본3 이준영)
4. 인턴 허영서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전문의료인으로 막중한 책임을 떠안을 분들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항상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집중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생이자, 선배로서 여러분의 현

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학생 여러분들이 수업과 실습을 병행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대면 강의 및 시험 소감 (본3 이준영)



Q1)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3학년 총대표 이준영입니다. 인터뷰 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여러 말씀 나눌 수 있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처음이라 좀 어색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Q2) 이번 학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기존 방식과 다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난 학기와 비교하였을 때 비대면 강의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의실이 아닌 강의실 외 더욱 편한 장소에서 수업을 들어 집중력이 더 좋아질 수 있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온 동영상 자료의 경우는 놓치 부분을 다시 찾아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르는 내용을 바로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Q3) 본과 3학년의 경우, 사실상 실습(로테이션, 원내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나와 지난 학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기존 로테이션 기간보다 짧게 진행되어서 보다 컴팩트하게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새로 짜느라 고생하신 교수님 및 레지던트 선생님들께 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내생의 경우에는 그 동안과 다르게 킵제도로 진행되어 초반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가 잘 적응하여 큰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위해 여러 번 회의를 하시며 고생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Interview



1. 신입 이해형 학장님
2. 교수인터뷰<신지선, 이준행, 박성민 교수>
3. 비대면 강의 및 시험 소감 (본3 이준영)
4. 인턴 허영서

Q4) 비대면 강의에는 여러가지 플랫폼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던 플랫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방식이 제일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간 화상강의인 줌과는 다르게 수업 중간에 놓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우들의 평이 좋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수업 자료의 제공에 있어서도 편의성이 있고, 게시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할 때도 말로 질문을 드리는 것에 비하여,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어 교수님께서도 더욱 상세히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Q5) 조금 분위기를 풀어서, 지금 비대면 강의로 인하여 신입생들은 학교를 직접 다녀보지 못 하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신입생들이 학교에 못 와서 아쉬워 하고있는 만큼, 재학생들도 후배들을 보지 못 해서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 예년과 같이 후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오지 못 해서, 아직 실감

이 나지는 않겠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학업과 여가를 모두 성취하는 현명한 예과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Q6)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서 비대면 강의는 익숙하지 않으심에도 학생들을 위한 열정과 노력으로 좋은 강의를 제공해주셨는데, 재학생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들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면 강의 때와 못지 않게 좋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수님과 한 공간에서 같이 수업 듣고 싶습니다. 본과 3학년 원내생 생활을 하며 느껴보니 교수님들께서 진료를 보시느라 바쁘시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인턴 허영서

Q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및 근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 치과대학 인턴 허영서입니다. 현재는 의과병원에서 구강외과 인턴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Q2) 6년간 치과대학 최우등생이셨듯, 누구보다 학교생활에 충실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힘들셨던, 혹은 즐거웠던 추억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6년간 학교생활 중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과 2학년때 실습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동기 여러명과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통해 많은 공부량을 극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트레스는 주로 동아리 활동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저는 테니스와 합창부 두 동아리를 했는데, 둘 다 저에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Interview



Q3) 학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목표한 바를 이루는 과정에서 과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간관계 같은 부분에서요. 노력을 하시더라도 조금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Q4) 올해 치과의사로서 활동하시는데, 학부생 때와 다른점이 있으신가요?

가장 눈에 띄는건,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내생때와 비교하자면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넘어져서 얼굴이 찢어진 소아환자가 내원했습니다. 봉합을 해주어야 하는 case였는데, 학부생 실습 때와는 또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안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게 되고, 흥이 지지않게 잘 봉합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Q5) 현재 수련의로서 목표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식상한 답변일 수 있겠지만 수련의로서의 첫번째 목표는 병원과 전공의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수련의가 되는것 입니다. 2차적인 목표는 여러 과를 경험해보고 내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는 것입니다.

Q6)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시는 본34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원내생 시작부터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특정 과를 결정하기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졸업 후 어떤 과를 수련할지 고민중이시라면, 본인의 흥미가 있는 전공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Q7) 어떤 철학을 가진 치과의사가 되고싶은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뭘 하는지 알고있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부터 완전히 진료를 끝낼때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이해하고 행동하는 치과의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다른 치과의사들이 이레 하는 진료니까 그것을 깊은 이해 없이 따라한다는 마음가짐은 의료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Q8) 어코로나19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20학번 신입생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우선 입학울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 예년과는 다르게 대학생활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으실 학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꿈에 그리던 대학생활을 즐기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Circle News



Pivot(농구부)

지도교수: 이상민 교수
회장: 본과1학년 최지훈



초록회(의료봉사동아리)

지도교수: 이진우 교수, 이상민 교수
회장: 본과3학년 최중현

덴토스(배구부)

지도교수: 문호진 교수
회장: 본과1학년 이한승

신편회(신문제작동아리)

지도교수 배정 안 된 상태
회장: 본과1학년 정동민

하프파이프(보드부)

지도교수: 이진우 교수
회장: 본과2학년 배성준

CATS(응원부)

지도교수: 신동훈 교수, 백동현 교수
회장: 본과1학년 전푸름

CMF(기독교동아리)

지도교수: 고선일 교수, 김은경 교수
회장: 본과1학년 김예담

백련회(불교동아리)

지도교수: 백동현 교수, 이준석 교수, 반주연 교수
회장: 본과1학년 권대영

필코러스(합창부)

지도교수: 김종빈 교수, 조용범 교수
회장: 본과1학년 정기호



도파(축구부)

지도교수 배정 안 된 상태
회장: 본과1학년 박하빈



가시광선(미술부)

지도교수: 최유성 교수, 오충훈 교수
회장: 본과2학년 박태영

ACE(테니스부)

지도교수: 백동현 교수, 김문영 교수, 이정환 교수
회장: 본과2학년 강성훈

Circle News



몸올림(연극부)

지도교수: 홍찬의 교수, 백동헌 교수, 최진우 교수
회장: 본과1학년 강준석
• 2020년 10월 15일_ 국시100일 행사진행



덴시(영화감상동아리)

지도교수: 김종수 교수, 신지선 교수
회장: 본과3학년 박정환

포토피리아(사진부)

지도교수: 조자원 교수, 김종빈 교수, 조인우 교수
회장: 본과1학년 전푸름

스틸러스(야구부)

지도교수: 신동훈 교수, 신현승 교수
회장: 본과2학년 이상현

아르모니코스(기타동아리)

지도교수: 한원정 교수, 김혜경 교수
회장: 본과1학년 송재원
• 2020년 10월 8일_ 국시100일행사(선물전달)

덴타모닉스(오케스트라)

지도교수: 정동화 교수, 고선일 교수, 이준석 교수
회장: 본과1학년 박규민



전산부(전산동아리)

지도교수: 김종수 교수
회장: 본과3학년 박규범

넛두리(풍물동아리)

지도교수: 김철환 교수, 이재훈 교수
회장: 본과1학년 오지석

SLALOM(스키부)

지도교수: 신지선 교수
회장: 본과2학년 김정우
• 2020년 10월 8일_ 국시100일 행사

사랑니(밴드부)

지도교수: 김종수 교수
회장: 본과1학년 박정민
• 2020년 10월 8일_ 국시100일 행사

장산곶(노래패)

지도교수: 백동헌 교수, 박종태 교수, 반주연 교수
회장: 본과1학년 박순혁

나즘회(봉사동아리)

지도교수: 고선일 교수, 한원정 교수, 유태민 교수,
도레미 교수, 박종태 교수
회장: 본과3학년 손가희

Introducing Circle

테니스부 ACE

동아리
소개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테니스부 ACE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본과 1학년 정동민이라고 합니다. ACE에서는 주로 부원들끼리 편하게 테니스를 치거나 서로 알려주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동아리입니다.

Q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동부 활동이 어려울 것 같은데, 테니스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A 아무래도 스포츠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되니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전치제나 전치제와 같은 치과대학테니스대회는 취소되었고,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는 훈련과 MT의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코로나 1단계로 완화되면서 앞으로의 양상을 지켜보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소규모로 훈련을 진행해 볼까 계획중입니다.

Q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테니스부의 활동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테니스부는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한 번씩 코치님을 섭외해서 테니스코트에서 정기모임을 가지며 방학 때는 자율적으로 3-4주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외에 연3회 테니스대회에 참여합니다. 제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원들끼리 친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과대학테니스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Introducing Circle

테니스부 ACE



Q 테니스 대회에 참여하신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동아리의 수상이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A 테니스 동아리 설립 이래 많은 수상경력이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치과대학대회 이력만 보면

2010년) 전치제(69제) 단체전 우승
전치테 단체전 우승
남자단식 준우승
여자복식 준우승

2011년) 전치제(69제) 단체전 우승
전치테 단체전 우승
남자단식 우승
남자단식 준우승
남자복식 우승
신인전 준우승

2012년) 전치제(69제) 단체전 우승
남자복식 우승
전치테 단체전 우승(남자부)
남자단식 준우승
남자복식 준우승

2013년) 전치제(69제) 단체전 준우승
전치테 단체전 우승
신인전 준우승

2014년) 전치테 신인전 우승
남자복식 우승
여자단식 준우승

2015년) 전치제(69제) 단체전 준우승
전치테 단체전 준우승(남자부)
단체전 준우승(여자부)

2016년) 전치테 단체전 준우승(여자부)
여자복식 우승

2017년) 전치테 단체전 준우승(여자부)

2018년) 전치테 남자단식 우승

2019년) 전치테(주최) 남자단식 우승
여자복식 준우승

으로 이외 일반대회까지 합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상이력이 있습니다. 치과대학을 넘어서서 일반대학생 대회 입상이라든지 성인 전국대회 신인부 오픈부 입상 및 우승도 선배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Q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포부가 듣고 싶습니다.

A 테니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니스를 좋아해서 ACE에 들어왔는데 테니스가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진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원 모두가 실력에 관계없이 즐겁게 테니스를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 흐름이 이어져서 1년에 한번 씩 개최되는 치과 의사 테니스대회에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이 지속적으로 우승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선배님들이 우승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자랑 부원들이 지속적으로 우승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Scholarship



2018년도 2학기				
장학대상	소속	학년	성명	금액(만원)
치과대학연승(신흥)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3	김정우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2	염희원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2	이명서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2	이수민	4,000,000
치과대학 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4	김원용	2,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3	남현태	2,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3	장훈제	2,000,000
치과대학 오스템 임플란트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2	박서연	2,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3	박연경	2,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2	안해성	2,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3	정다운	2,000,000

2019년도 1학기				
장학대상	소속	학년	성명	금액(만원)
치과대학연승(신흥)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1	구영진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3	이동건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1	우승희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1	최현웅	4,000,000
치과대학[덴티움 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4	박재균	2,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3	이명서	2,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4	윤원규	2,000,000
치과대학(소아치과)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1	권수경	1,000,000

Scholarship



2019년도 2학기				
장학대상	소속	학년	성명	금액(만원)
치과대학연송(신흥)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1	구영진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1	우승희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3	이동건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1	최현웅	4,000,000
치과대학[덴티움 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4	곽다운	1,5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4	박연경	1,5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3	이상우	1,5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4	한재연	1,500,000
치과대학 오스템임플란트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3	박은찬	2,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4	반민석	2,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2	안해성	2,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3	이상우	2,000,000

2020년도 1학기				
장학대상	소속	학년	성명	금액(만원)
치과대학연송(신흥)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2	곽연진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2	박지윤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3	정준모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4	최윤정	4,000,000

2020년도 2학기				
장학대상	소속	학년	성명	금액(만원)
치과대학연송(신흥)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2	곽연진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2	박지윤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3	정준모	4,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4	최윤정	4,000,000
치과대학 코스모스 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2	이다연	1,000,000
	치과대학 치의학과	2	유철원	1,000,000
치과대학 신편회 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2	김율리	2,000,000
치과대학 동창회 장학금	치과대학 치의학과	2	강창훈	1,500,000

Professors



1) 치의예과

- 구강해부학 - 박종태 교수
- 구강생리학 - 오충훈 교수
- 구강병리학 - 이종현 교수
- 치과약리학 - 반주연 교수
- 구강생화학 - 고선일 교수
- 치과생체재료학 - 장영주 교수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파견)
- 치과생체재료학 - 이해형 교수
- 치과생체재료학 - 김해원 교수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파견)
- 치과생체재료학 - 이정환 교수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파견)
- 구강미생물학 - 백동현 교수
- 구강미생물학 - 이성훈 교수

2) 치의학과

- 보존과 - 신동훈 교수 - 조용범 교수 - 문호진 교수 - 송민주 교수
- 구강악안면외과 - 이재훈 교수 - 김철환 교수 - 한세진 교수 - 김문영 교수
- 보철과 - 박성민 교수
- 보철과 - 이종혁 교수 - 신수연 교수 - 이준석 교수 - 최유성 교수
- 보철과 - 송영균 교수 - 하승룡 교수
- 치주과 - 신현승 교수 - 박정철 교수 - 조인우 교수 - 이성조 교수
- 교정과 - 이진우 교수 - 정동화 교수 - 이상민 교수
- 소아치과 - 김종수 교수 - 김종빈 교수 - 신지선 교수 - 이준행 교수
- 구강내과 - 김미은 교수 - 김혜경 교수
- 영상치의학과 - 김은경 교수 - 한원정 교수 - 최진우 교수
- 예방치과 - 조자원 교수 - 유현준 교수
- 마취과 - 김승오 교수
- 통합치의학과 - 유태민 교수 - 도레미 교수 - 신수일 교수

DKU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College of Dentistry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Newsletter <단아인> 2020. 11. vol.10

발행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발행인 이해형 발행일 2020.11.30 공동 편집장 이정환, 박성민, 이상준
편집위원 우승희, 이다연, 정성수, 함승윤, 김종혁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Newsletter <단아인>에 게재된 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전재되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